

# 【국 어】

1.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보 기 > —  
음운 변동의 유형으로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있다.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러한 음운 변동 유형들 중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① 끊어[끄너]                      ② 흙하고[흐카고]  
③ 밤웃[밤눈]                      ④ 술하다[수타다]

2. 다음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옳바르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문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에서만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 ① 타고나다 - 통사적 합성어  
② 붙뚱 - 비통사적 합성어  
③ 돌보다 - 통사적 합성어  
④ 높푸르다 - 비통사적 합성어

3. 다음 중 ㉠과 ㉡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 ① ㉠ 그는 하는 시합마다 백이면 백 모두 승리했다.  
㉡ 열 사람이 백 마디의 말을 한다.  
② ㉠ 오늘이 첫 출근 날입니다.  
㉡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 날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③ ㉠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 우리는 날이 밝는 대로 떠나기로 했다.  
④ ㉠ 높이가 100미터인 바위산에 올라갔다.  
㉡ 나무가 벌써 어른의 키 높이 정도로 자랐다.

4. 다음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들**<sup>1</sup> 「의존명사」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 **들**<sup>4</sup> 「조사」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들**<sup>8</sup> 「접사」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①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들을 가방에 넣었다.  
② 거기 ㉡앉아서들 이야기하세요.  
③ ㉢다들 떠나갔구나.  
④ 나는 “㉡어서들 오세요.”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5. 다음 중 원칙대로 띄어쓰기를 할 때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어려운√일√하는√사람을√보면√존경심마저√생긴다.  
② 그√사람이√떠난√지√사흘√만에√돌아왔다.  
③ 저√큰√집√한√채√살√때까지√열심히√돈을√벌었다.  
④ 네√말을√들으니√그럴√법√하다는√생각이√든다.

6. 다음 단어의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바른 것은?

- ① accessory: 악세사리 - juice: 주스  
② window: 윈도 - concept: 콘셉트  
③ robot: 로봇 - ad lib: 애드립  
④ symposium: 심포지움 - flash: 플래시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고개 숙인 벼 이삭으로 누레진 들판.  
② 만들새를 보니, 정성을 들인 것이 분명하다.  
③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이를 닦았다.  
④ 그이가 늦지나 않을는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8. 다음 중 두 번 이상 안긴 절이 있는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철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용기가 부족하다.  
② 누구나 자기 현실을 불변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③ 누구도 그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후보자임을 의심치 않았다.  
④ 그는 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9. 다음 중 설명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동창회에서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했다.’의 ‘동창회에서’는 주어이지만, ‘어느 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의 ‘동창회에서’는 부사어이다.  
② ‘물이 얼음이 되었다.’와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얼음이’는 보어이고 ‘얼음으로’는 부사어이다.  
③ ‘민주는 엄마와 진학 문제를 의논했다.’의 ‘와’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엄마와 민주는 민하를 기다렸다.’의 ‘와’는 접속 조사이다.  
④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너라.’의 ‘하고’와 ‘너는 성적이 누구하고 같으냐?’의 ‘하고’는 모두 부사격 조사이다.

10.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내가 오직 바라는 일은 네가 잘됐으면 좋겠다.  
→ 내가 오직 바라는 일은 네가 잘됐으면 하는 것이다.  
② 형사들은 도피 중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문초하기 시작했다.  
→ 형사들은 그를 도피 중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문초하기 시작했다.  
③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④ 그는 손을 넣고 걷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 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11. 다음 작품은 김삿갓이 주인에게 대접을 받고서 쓴 시이다.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다리 소반에 죽 한 그릇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떠도네  
주인장, 면목 없다 말하지 마오  
나는 물에 거꾸로 비친 청산이 좋다오.

- ① 가난한데도 죽이나마 대접하려는 주인의 인정이 따스하다.  
② 감사를 전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③ 하늘과 떠도는 구름은 주인의 유유자적한 삶을 의미한다.  
④ 나그네의 정서에서 자조나 한탄은 보이지 않는다.

12. 다음 글에 나타난 매클루언의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매체[media]’란 어떤 작용을 다른 곳으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물체나 수단이다. 이에 따르면 젓가락이 부딪치는 소리를 우리 귀에 전달하는 공기, 또 음성의 정체를 분석하도록 뇌에 전달하는 귀도 일종의 매체이다. 곧 매체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매체학자인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 1911~1980)은 매체에 대한 이러한 기존 인식이 매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매체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 작용을 유발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활용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매개 도구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연설이나 편지처럼 직접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말과 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옷과 집, 과학과 철학, 회화와 음악 등도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매체에 의해 인간의 사고가 결정되고, 인식 체계가 바뀌며,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매체는 메시지이다.’라는 그의 말에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 담겨 있다.

- ① 언어적 기호(記號)와 비언어적 기호(記號) 둘 다 매체다.
- ②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면 사회가 변할 수 있다.
- ③ 매체는 매개체이고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단순한 매개 수단이다.
- ④ 의미 전달에 활용된다면 기차도 매체라 할 수 있다.

13.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遣去如 (\* ‘卯’은 ‘卯’로 판독하는 경우도 있음.)

- ① 『균여전(均如傳)』에 실려 있다.
- ② 민요적 성격이 강하다.
- ③ 첫 번째 구의 밑줄 친 ‘隱’은 음독(音讀)한다.
- ④ 형식상 <현화가>와 같다.

※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였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중략)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중략)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땀이 근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구.”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편에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중략)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중략)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헤 드릴게.”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요?”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중략)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내다보았다. 백화가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중략)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리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중략)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14.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였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달은 백화와의 동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② 정 씨 본인은 뜨내기 신세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백화는 영달의 마음을 가늠하기 힘들어 불안해 한다.
- ④ 백화는 영달에게 호감이 있다.

15. 문학 기법 관련 서술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관찰자 시점의 성격을 지녔다.
- ② 말하기(telling) 기법을 통해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③ 백화의 복잡한 심정이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 ④ 말끝을 흐리는 방법으로 ‘감정의 여운’을 표현하고 있다.

16. 다음 글에서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퓨전 바람은 역사 속의 문화 융합과는 사뭇 다르다. 과거에는 ( ) 식의 변화와 통합이 주를 이뤘다. 즉 남쪽의 굴을 북쪽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식이다. 북도 중심의 서양식 아파트가 이 땅에 와서 거실 중심의 구조로 바뀐 것은 마당을 중심으로 방이 빙 둘러서는 한옥 형태에 적응한 결과다. 한국의 갈비가 바비큐 문화에 ‘적응’하여 엘에이(LA) 갈비로 거듭난 것도 ‘굴이 탕자가 되는 식’의 융합 사례들이다. 생활의 필요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이 자연스레 합치게 되었다는 뜻이다.

- ① 國粹主義      ② 衛正斥邪      ③ 嘗糞之徒      ④ 橘化爲枳

17. 다음 글의 밑줄 친 ‘자(恣)’와 같은 한자를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개’라고 불리는 동물을 영국인은 ‘dog[도그]’라고 부르고, 독일인은 ‘hund[훈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의 의미가 언어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는 특성을 언어의 자의성(恣意性)이라고 한다.

- ① 지자체는 ‘지방 자치 단체’의 줄임말이다.
- ② 그의 방자한 태도가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 ③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 ④ 지리산은 웅장한 자태를 뽐냈다.

18. 다음 글의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에서 실재와 똑같이 그려진 회화는 원본의 복제물인 ‘시뮬라크르’라고 하였다. 시뮬라크르는 ‘파생 실재’라고도 불리는데, 실재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사실성, 즉 ‘하이퍼리얼리티’를 가진다. 이때 실재가 파생 실재로 전환되는 작업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한다. ‘시뮬라크르’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플라톤인데, ‘시뮬라크르’를 실재하지 않는 것, 가상의 것으로 보았다. 플라톤은 현실은 세계의 원형인 이데아의 복제물이고 회화는 그 현실을 다시 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플라톤의 시각과 달리 보드리야르는 현대에는 시뮬라크르가 독립된 정체성을 갖춘 개체, 즉 또 다른 실재이자 원본이 되었다고 하였다.

- ① 시뮬라시옹의 결과물이 시뮬라크르이다.
- ② 시뮬라크르, 파생 실재, 하이퍼리얼리티는 같은 의미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 ③ 보드리야르는 사진을 보고 이를 재현한 그림의 가치를 인정했다.
- ④ 플라톤은 실재를 완벽하게 똑같이 그린 회화의 가치를 인정했다.

19. 다음 글의 독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물을 돈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예로부터 물이 매우 귀했던 제주도에서는 잔칫집에 초대받아 갈 때 선물로 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가져가곤 했다. 물이 곧 돈이나 과일 같은 값진 선물이었던 셈이다.

제주도에서는 비가 올 때 나무를 타고 새끼줄을 따라 흘러들어 온 빗물을 항아리에 모은 후 식수로 사용하곤 했다. 여름철에는 그 항아리 물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개구리를 거기에 넣어 기르는 집도 있었다고 한다.

(나) 느린 존재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 듯하다. 세상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낙오된다. 그러나 단기 승부의 순발력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2년 월드컵에 맞춰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급속하게 추진했던 고속철도가 예정보다 2년이나 늦게 개통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진정한 경쟁력은 오히려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실을 다지는 깊이에서 나온다.

- ① (가)와 (나) 모두 우선 사실적 독해를 기본으로 한다.
- ② (가)의 두 문단은 ‘주지-부연’의 관계로 읽어야 한다.
- ③ (가)는 이해 위주의 읽기로 충분할 수 있다.
- ④ (나)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기에 공감은 피해야 한다.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남선, 이병기, 이은상은 시조 부흥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② <춘향전>, <심청전>, <구운몽>은 판소리계 소설이다.
- ③ 이상의 <날개>는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 소설이다.
- ④ <호질>, <양반전>은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다.